

-교육 및 정신문화를 중심으로-

김 문 준*

1. 머리말
2. 유교문화의 가치와 충남유교문화
3. 유교정신의 현대적 의의
4. 유교정신의 현대적 활용방안
5. 유교정신 활용의 전제

1. 머리말

충남의 유교문화 개발은 충청남도의 차원에서 지역 이미지 강화의 방안으로서 유교 및 예학 문화를 상징화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충남지역의 유교문화권 개발은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그리고 금강생태문화권 개발과 차별되는 의미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충남은 조선 후기 유교문화의 각 모습들을 빠짐없이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유교 및 예학문화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큰 경쟁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논산은 조선시대 기호학파의 중심지인 충청도의 유교문화 특성을 집약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정신문화 전통의 계승과 보존이 강한 지역이면서, 조선 선비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남아 있는 곳으로 “충청도 유교문화권의 중심”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교문화를 오늘날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박제화하여 타임캡슐에 넣어진 상태로 후세에 전하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충남유교문화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의 경북 유교문화개발에 대한 상대적으로 지역개발 요구가 되어서도 안된다.

유교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특성을 되살리는 노력을 그만둘 수 없으며,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수준, 그러면서도 한국인이 창조해온 문화역량, 그 가운데서 충청인이 즐기고 만들어간 문화를 온전히 드러내어 형상화해야 하는 것이다.

충청유교문화권을 개발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그러자면 국가에 도움이

* 건양대학교 교수 · 건양대학교 예학교육연구원장

되어야 하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국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충청유교문화에 내재한 정신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고, 그 활용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유교문화의 가치와 충남유교문화

충남유교정신은 17세기 이후 한국유교에서 주도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별히 충남유학의 강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예학과 의리학에 입각한 예절문화라고 할 수 있다. 충남유교의 내용과 특성은 한국전통유학의 내용과 구조적 특성을 체계적이며 전반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한국전통유학은 성리학, 예학, 의리학과 체계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첫째, 성리학과 예학의 연관성이다. 조선 유학의 핵심인 성리학은 우주, 인간에 적용될 보편적 이론인 천리(天理)를 추구하여 인심(人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기론(理氣論)은 천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우주론으로서, 천지의 궁극적 원리인 태극과 인간·만물의 생성원리와 본질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며, 심성론(心性論)은 인간의 심성구조를 이해하고 인간의 심성과 의지로부터 연유되는 선악을 구별하고 심신의 수양방법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이론이다. 성리학은 예학으로 연장되었다. 예학(禮學)은 우주·자연의 존재론인 이기론과 인간의 존재론인 심성론을 바탕으로 사회윤리·규범을 제도화하려한 학문이며, 이것이 조선 사회의 규범이 되었다. 예학은 사람의 심성이 지닌 어진 인정(人情)문화를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제도화하였으며, 특히 관혼상제의 예제를 정립하여 종법사회를 바탕으로 임진 병자 양란 이후의 국가사회 재건의 기틀을 만든 학문이다.

충청유학(기호유학)은 17·18세기 한국유학의 중심지였으며, 성리학·의리학·예학이 그 사상의 핵심이었다. 특히 한국유학사에서 특이한 발전과정을 보이는 부분이 예학의 발전이다. 한국예학의 핵심은 『가례』이다. 가례(家禮)란 사대부 일반 가정생활의 기본예절로, 한 인간의 모든 일생 과정을 담고 있는 관혼상제 등 사례(四禮)이다. 조선예학은 예제를 성리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예를 행함에 의리와 명분을 핵심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대함에 명분과 사랑과 존경심을 관혼상제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예학은 성리학적 이념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학문이고, 예제와 예설은 그 구체적 표현이다. 예학은 예를 행하는 원리를 탐구하고 체계화하여 의식적인 예 실천을 유도하고, 『가례』의 모든 내용과 조선 속례(俗禮)에 대한 전반적인 학문 검토를 통하여 가례를 체계화한 학문이다. 특히, 17세기 이후 한국 예학을 선도한 김장생-김집-송시열로 이어지는 사계학파의 예문답서들이 대체적으로 가례 연구에 집중하였다.

둘째, 성리학과 의리학의 연관성이다. 성리학은 인간성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학문이며, 자연히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는’ 인간의 처세와 역사참여를 문제시한다.

충청유학의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조선 도학을 강력한 춘추의리론으

로 확립한 점이다. 춘추대의는 불의를 배격하고 인의를 수호하려는 강렬한 도덕가치론이다. 충청유학의 대표자인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의 춘추대의에 입각한 주체적 의리정신은 민족사를 통하여 그 정신적 맥락이 구한말까지 이어져, 근세의 민족주체 의식에 사상적·정신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우암은 세도(世道)를 자임하고자 하였는데, 그 내용은 ‘존주자 양이적’(尊朱子 攘夷狄)이었다. 우암은 인간의 소이연(所以然)과 도리를 일깨우고 천리인욕(天理人欲)을 분별하여 선-악, 의-불의, 군자-소인이 나뉘게 되는 근원을 분명히 하고, 인간 개개인과 국가가 이단을 막고 이적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를 밝혔으며, 난세에 처하여 인도를 행하는 방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충청유학의 학풍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통관이다. 충청유학의 철학과 사상은 철저하게 한국 도학사상의 전통과 도통 위에 건립되어 있다. 도통이란 성현이 서로 주고받아 계승해 간 통서, 곧 성통(聖統)을 의미하며, 성현이란 인극(人極)을 세워 인간 도리의 표준을 세우고 인륜을 행하게 한 자라는 의미이다. 충청유학의 학문·사상·사업은 주자와 이이의 학문에 근거하여 도통을 확립하고 계승하여, '直'철학으로써 춘추의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의리를 천명하는 것이었다.

둘째, 직(直)의 철학이다. 우암의 성리사상은 ‘직’으로 귀결되어, 우암은 수양과 행도(行道)를 직으로 요약하여 요결로 삼았다. 직의 정신은 공맹과 주자에게 일관된 도통이며, 송익필·김장생·송시열에게 전수된 기호예학의 심법이였다.¹⁾ 공맹과 주자를 이어 직의 철학을 수립한 송익필의 사상은 김장생에게 전수되었고, 소학과 주자가례의 실천을 통하여 인극을 자각하고 행하려던 김장생은 직을 이어 받아 마음을 세우는 요체로 삼았으며,²⁾ 김장생의 직의 정신은 특히 송시열에게 전수되었다. 우암의 직철학이나 북벌의지는 수오지심을 확장하여 적극적으로 불의에 항거하는 실천이었다. 직의 철학은 송시열 이후 기호학과 노론 계열의 상전(相傳) 심법이 되었다.

셋째, 춘추의리정신이다. 우암은 일생동안 절의를 숭상하여 동주(東周)를 높이고, 대의를 어기는 행위는 엄중히 비판하여 윤기(倫紀)를 세우는 사업에 경주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세도(世道)로서 ‘존왕양이’에 입각한 천명배청의 의리를 강조하였다. 존주·존명의 주(周)와 명(明)은, 인의와 왕도의 표상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송시열과 송준길의 학풍은 그의 제자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1641 ~ 1721)가 계승하여 충북 제철을 중심으로 활약하면서 스승의 학문작업을 계승하고 강문 8학사 등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다.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 등 충청유학자들의 성리학과 의리정신은 예절문화로 형상화되었으며 이들의 예절문화는 이후 한국인의 인격과 사회질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들의 예절문화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신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주체성 확립과 실천(天理와 禮制)이다. 예의 근거를 밝히고 예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예학에는 도덕적 순수성과 명분(名分)에 따른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정신이 깃

1) 上同, 附錄, 卷13, 1: 又曰天地之所以生萬物應萬物 直而已 孔孟以來相傳 惟是一直字.

2) 宋子大全, 卷131, 21: 沙溪之學專出於確之一字 而每以直之一字爲立心之要.

들어 있다. 도덕적 순수성이란 사정(私情)을 절제하고 천리(天理)에 입각한 예를 따른다는 정신이고, 명분에 따른 합리성은 인륜과 종법에 따르는 사회질서를 건설한다는 정신이다.

김장생은 예는 천리에 근본하는 것이며 기강과 인도(人道)의 대단(大端)이라고 하였으며, 김집은 예라는 것은 인욕(人欲)을 절제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법칙이라고 하였다.³⁾ 이러한 것들은 당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예의 철학적 기반이었다. 17세기 예학은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한다(存天理去人欲)’는 이기성정(理氣性情)의 철학에 바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리설에 대한 이해 없이는 17세기 예학을 이해할 수 없다. 예학은 성리학의 ‘존천리(存天理)’를 철학으로 하여 천리의 ‘절문(節文)’을 밝히고, 사회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예학자들은 예행이 단순히 외제적인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내재하는 보편성을 주체적으로 발휘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했다. 성리(性理)의 이(理)는 객관적 보편성인 천리(天理)이자 주관적 특수성인 성리(性理)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객관적 보편성을 지닌 주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을 객관적인 예제에 따라 행함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예에 의거한 생활은 천리에 부합하는 것이며, 천리란 인간 상호간에 사랑과 공경(愛敬)을 극진히 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둘째, 자기절제의 정신이다. 예학이 추구하는 바는 극기복례를 통해 천인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극기복례는 인간 개개인이 이기심이나 욕심을 극복하고 사회의 객관적인 예제를 준행하여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이루며, 이러한 가운데서 개개인의 삶을 완수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예학자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정(私情)을 억누르고 예를 따른다(抑情從禮)’는 것이다. 극기를 통해 어질고 선한 자기 본성을 깨닫고, 이로써 스스로 자율 의지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자기를 극복하는 수련 자체가 예의 실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극기하는 과정이 예를 실천하는 일상생활이 되기 때문이다. 예로써 절제하고 예를 실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셋째, 종법질서에 의거한 친애정신이다. 예학자들이 예제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례』는 종법(宗法)⁴⁾을 토대로 하며, 종법은 조선조 사회질서의 근간이었다. 김장생과 그 문인들이 주도하여 성립한 17세기 조선예학이 미친 사회적 영향의 하나가 바로 종법제도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조에 이룩한 제도상의 변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종법제도의 정착이다. 예학이 발전한 17세기는 조선 초기 이래로 정착시키고자 했던 종법질서가 정착된 시기로, 종법질서의 확립으로 인해 친족제도가 부계(父系) 중심적 종족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고 문중 중심적인 사회질서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가정에서 종자(宗子)와 가부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검박하고 근면한 부인상이 확립되었다. 혼인문제에 있어서는 동성동본간의 혼인과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였다. 여자는 부계가족을 위해

3) 『家禮輯覽』 後序. “禮者本乎天理 而紀綱人道之大端”

4) 종법은 조선사회의 친족 원리이며 동족결합의 이념적 기초로서, 宗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 宗이란 조상의 제사를 받들기 위한 후손들의 집단이다. 즉 종법은 祭祀者를 정하는 법으로서, 종법에 의한 제사계승을 의미한다. 종법제도의 기본 구조는 祭享者와 奉祀者를 확립하고 봉사자간에 신분상의 차이와 서열 상의 우위를 두는 것이다. 女息과 사위(婿)는 종족 외부인이 되어 종족에서 제외된다.

희생하여 재혼을 하지 않는 열녀를 이상형으로 삼게 되었다.

조선 초기부터 중법을 사대부가에 널리 시행하도록 권장하였으나 널리 시행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16세기 이후 가문과 문벌로서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족보와 서원(書院)·사우(祠宇) 등을 세워 가문의 지위를 높이고 현창(顯彰)하는 사업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임진·병자 양난 이후에는 양반뿐만 아니라 상민(常民)들도 동족을 결합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은 부자(父子)의 관계성(親親)에 따른 인륜질서를 토대로 하여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 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오늘날 자유와 평등의 이념하에서 가부장적 권위 구조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당시 예학자들은 부형(父兄)의 자애(慈愛)와 자제(子弟)의 효도를 바탕으로 가족의 친목과 경제적 유대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국가의 안정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17세기 충청유현들의 학풍과 사상체계와 예학정신은 이후 한국정신사의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 이러한 17세기 충청유학의 문화적 의의는 18세기 진경문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진경시대’(眞景時代), ‘진경문화’(眞景文化)란 사실적이면서도 뚜렷한 가치관을 가진 문화시대라는 의미로, 최근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용어이다. 조선후기 문화의 한가지 흐름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조선후기 한국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면서, 진경시대의 조선후기의 문화가 조선의 교유색을 한껏 들어 내면서 성숙한 발전을 이룩한 문화 절정기를 일컫는 말이다. 그 시기는 숙종대로부터 정조대에 이르는 125년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진경문화론은 이미 학계와 지성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면서 주목되고 있는 논의이다.

이 시기의 진경문화가 꽃피워질 수 있게 된 사상적 배경으로는 율곡 이이에 의하여 성립되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자주적인 ‘조선 성리학’이라고 정리하고 있으며, 조선 성리학 성립에 뒤이어 등장한 17세기 ‘조선예학’에 학문적 관심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17세기는 ‘예학의 시대’라고 칭하는 만큼 예의 영향력이 지대한 시기였으며, 조선후기 진경문화의 성립 배경에는 조선성리학 이외에도 자주적인 ‘조선예학’이 또한 주목되고 있다. 자주적인 조선성리학의 맥을 이은 조선예학 역시 당시의 자주적 문화관념을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진경문화의 성립과 예학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진경문화론은 조선후기 문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자주적인 인식 경향이며, 조선후기의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적 논리이고, 동시에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응 논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세계화의 가속화 현상과, 또한 최근의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정책 등으로 자기문화의 정체성의 확립이 새롭게 요청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 과제와도 무관하지 않은 문화인식이다.

3. 유교정신의 현대적 의의

예학은 인의(仁義)의 정신을 추구하였으며, 그 제도화는 종법질서로 나타났다. 역정종례는 극기복례(克己復禮)이며, 종법질서는 그 사회형식이다. 극기복례 정신과 종법질서로 요약되는 17세기의 예학은 국가와 사회,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정신과 사상을 가례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다. 인욕(人欲)을 절제하고 ‘천리(天理)의 절문과 인사(人事)의 의칙(儀則)’을 준수하는 문화생활을 토대로, 예치와 문치를 이룬다는 것이 성리학자들의 공통된 사상이었다. 인의 구현은 궁극목적이요, 예교(禮敎)는 그 방법이다. 인의를 바탕으로 하는 ‘수기애인(修己愛人)’을 인문 예교의 덕치로써 구현하자는 것이다.

오늘날 조선 후기의 예학을 번문육례(繁文縟禮)나 공리공담으로 평가하고, 극복되어야 할 전근대적인 중세사회의 허학(虛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예제의 형식적 측면만을 보기 때문이다. 당시의 성리학자들은 인간에게 천리(天理)가 내재하므로 인의를 배필 수 있고, 그것은 예의 실천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성과 사회에 대한 명철한 통찰과 인도정신을 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인간성 신뢰와 인도적 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는 오늘날에도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성격과 여건을 지니고 있다.

모든 문화의 생명력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향유할 때 유지된다. 유교문화는 이러한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대중화의 어려움이다. 유교문화는 아직 우리 삶에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교문화 자체가 현대사회에 부합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유교는 오랜 자기 절제의 수양공부가 필요한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유교문화를 대중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그 동안 유교정신을 계승하는 구심점이었던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 등은 제사기능만 남아 있고 유림조직인 유도회는 노령화하여 유교 대중화에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유교의 가치를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적 토대와 인생가치관의 변화, 핵가족화, 친족 및 문중조직의 약화, 유교 교육기관의 부재, 제사기능의 약화 등 전반적인 사회변화는 유교문화가 점차 대중들의 삶 속에서 멀어져 재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유교문화 유무형의 유산들이 사라지고 있다.

오늘날의 유교문화는 최근 100여년 사이에 급속하게 화석화되어 가고 있지만, 유교문화가 우리 민족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아직도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 살아 숨쉬고 있다. 세월이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염치심과 예의정신, 관혼상제와 같은 통과례, 충효사상, 경로사상 등 아름다운 풍속이 아직도 일상생활의 행위의례와 윤리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화니 정보화니 하는 변화 속도가 빠른 시대에 옛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따르기는 어렵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선조들이 닦아 놓은 지혜와 삶의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문화전승과 문화창조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유교 전통문화는 계속 우리 일상생활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제도 및 환경 속에서 유교의 문화 전통을 적용시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유익한 활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교문화를 대중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전통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는 일이다.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온전히 수집(蒐集)하여 전시(展示)하고 시연(試演)하는 일이다. 둘째,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현대화하여 교육하는 일이다.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이해하고 생활화할 수 있게 하고, 관광대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물론 전통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는 일이 우선이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현대화하여 교육하는 일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4. 유교정신의 현대적 활용방안

유교문화활용을 통한 유교정신가치의 현대화는 일반대중이 그 문화를 체험하고 계승한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점차 소멸되거나 박제화되어 가는 유교문화재와 가치를 오늘날 일반인들의 삶 속에 다시 소생시키고 쓸모있는 재생산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현대적 활용방안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대중이 유교문화를 현대생활 속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일이며, 둘째는 높아지는 문화체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다. 양 측면은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며 유교문화와 정신의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는 어느 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첫째, 일반대중이 유교문화를 현대생활 속에서도 유용한 문화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생활에 적합한 유교생활문화로 재창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유교문화와 정신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을 주시하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이를테면, 예절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관혼상제례의 경우, 관례는 청소년에게 성년이 되는 의미를 일깨우는 성인식으로, 혼례는 백년해로와 남녀동등이라는 새로운 혼인문화가 가능한 예식이 되도록 해야 하며, 상례와 제례 또한 간소하면서도 경건한 예식이 되도록 해야 하며 절차와 예식 내용을 재구성해내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인사하기 절하기 식사예절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행동의례를 계승 정립하고 전파하는 일이다.

둘째, 문화체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광상품화의 문제이다. 유교문화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축제 등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관광상품화로는 성공하기도 어렵고 지속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유교문화를 산업 및 상업화 속에 매몰시켜서는 안되며, 또한 유무형의 유교문화자원을 상품화한다 해도 지역주민의 자부심 속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의 관광패턴이 관람형 관광에서 점차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색적 체

험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게다가 주 5일제가 본격화되고 교통 및 인터넷 정보문화가 더욱 발달하면서 이색적 체험의 욕구와 이를 해결해주려는 기회 제공도 점차 많아질 전망이다. 현대 도시인들이 새로운 경험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해외관광, 농촌체험, 각종 스포츠와 이벤트, 각종 종교체험과 이색적인 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의 수요와 공급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관광패턴의 변화가 유교문화체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반 대중의 체험관광 욕구를 유교문화체험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현대인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유교문화의 유형·무형 유교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이색체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체험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형·무형의 유교문화재의 상업화보다는 전통유교문화를 체험시키고 교육시키려는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여야 한다. 최근의 사원생활체험인 ‘템플스테이 붐’⁵⁾이나 한옥생활체험 사례인 지례의 예술인 촌⁶⁾의 예를 통하여 충남유교문화 관광개발의 시급성을 삼아야 할 것이다.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은 유교전통문화를 체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과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유교문화관광지일뿐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지나친 상업화로 인하여 유형·무형의 문화재가 그 원형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전통문화체험의 목적은 그 문화의 전승에 두면서, 현대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화체험의 강도가 강할수록 체험의 효과는 커지고 체험 만족도도 높아진다. 비록 체험당시는 다소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한 이색 경험이 오히려 큰 인상을 남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2년 한일월드컵기간동안 시행한 불교계의 성공적인 템플스테이를 주목할 만하다. 사찰을 개방하고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외국인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인의 사찰문화체험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교계의 선례를 조건이 다른 유교계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점차 죽은 가치로 전락해 가는 유교문화재를 대중들의 유교문화체험의 자원으로 개방하고, 나아가 각종 의례를 포함한 무형의 문화재를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유교문화의 현대화하고 대중화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 전시 및 시연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흥미를 가미하기 위하여 전통유교문화의 고유성과 전통성마저 붕괴시켜서는 안된다. 원형 시연과 흥미를 가미한 연

5) 전남 해남군 대둔사의 ‘대둔사 새벽 숲길’ 프로그램이나 미황사의 ‘청소년 수련회’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수련회 전문사찰로 알려진 화성 신흥사의 경우 연간 수만명이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밖에도 법보신문은 ‘주말을 산사에서’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템플스테이로 적합한 곳을 안내해 주고 있다.

6) 경북 안동 소재. 조선 숙종 때(1663년) 건립된 종택과 제청, 서당 등 10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8년 임하댐 수몰을 계기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지례예술인 촌은 종택과 서원을 공공의 목적으로 개방한 최초의 사례이자 한옥생활체험의 효시이다. 지례예술인촌은 처음에는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의 산실로 기획되었으나 안동의 전통가옥과 양반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안동지방에서 최고의 반가로 손색없는 지촌종택과 그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하회마을과 비교가 되지 않으나, 전통유교문화를 체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극은 별개이다.

둘째, 체험을 중심으로 하되, 전통유교문화 체험이 유람형 및 관람형 상업관광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유교문화에 담겨있는 정신가치를 느낄 수 있는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전통 의식주를 통한 선비들의 일상생활, 다도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배우고 일상생활에 쓸모있는 체험관광이 되도록 유교문화체험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체험 및 관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타 지역민들이 체험교육장을 다녀 온 이후 그곳의 지역문화를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최소 부담의 원칙’을 관철해 나가야 한다. 체험자는 교육받고 체험하는 과정에 최소 부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교육주체는 유교문화의 대중화에 만족해야 하고 고객은 유교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데 만족해야 한다.

여섯째, 유형·무형의 유교문화재는 역사·사회적 산물이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공공재이다. 유교문화재의 소유자와 체험참여자는 그것을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유교문화체험과 관련된 시설 및 문화재 유지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체험자의 최소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⁷⁾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특히 충남 유교문화 개발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예절교육을 특성화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현대사회와 가정에 적절한 예절교육장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남의 체험관광으로 특성화하면 유아교육에서부터 청소년교육에 이르기까지 학부모들로부터 대단히 큰 호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생활예절교육은 각 가정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이 그 역할을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다. 맞벌이 부모가 늘고, 자녀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와 음악 등 사교육을 받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입시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독점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생활의 내용이 점차 다변화되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많은 시간을 가정 외로 끌어내어 가정교육이 대단히 약화되어버린 상황에서 유아시기부터 간단한 예절을 가르쳐 가정과 동네에서 예절바른 아이로 성장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예절교육체험은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절문화의 계승이라는 거창한 구호 이전에 밥상머리 교육이 거의 사라져 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사회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생활에서 부모와 형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른대하기, 형제자매 대하기, 친구대하기 등에 대한 올바른 방법과 태도에 관한 훈련을 받은 적이 매우 적다. Roll-play기법 같은 현대 교육방법을 동원하여 학생들이 자기의 역할에 따른 사회생활 방법을 익숙하게 되도록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7) 유승무, 「유교문화재의 활용을 통한 유교문화 체험의 대중화방안」,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학술세미나 유교현대화 연찬6, 2003 pp56-57참조

주어야 한다.

한국전통의 생활예절문화는 '과거의 민속(民俗)'으로 생각하고, 박제화하여 박물관에서나 만나보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 일을 가정과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역할을 사회가 담당해야 한다.

5. 유교정신 활용의 전제

현재 유교문화자원의 현황과 개발의 현황은 각개 문화유적과 인물들을 여러 형태로 나열 지적하는 수준, 권위적 건축물 중심의 복원과 정비 형태, 유교문화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효율적으로 포장하는 방법의 미숙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유교문화 유산을 올바로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교문화권 개발은 앞으로 유교문화재를 생활공간 속에서 정신적 품위를 지닌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템의 경쟁력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특화」된 충남의 문화 특성화를 만들어 육성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1) 유교·예학문화의 특성과 가치를 재음미하고, (2) 이를 충남지역 문화의 상징으로 표상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그 일환으로 선비·양반·예학·정신의 문화를 발굴 선양 특성화하여 문화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발의 방향은 개발의 대상범위를 유교문화와 연관된 유·무형의 모든 자원으로 확대하여,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하여 이를 체험하는 유교문화 이해 프로그램(소프트)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한 유교문화자원 개발 방안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⁸⁾

- 유교문화와 관련된 유·무형의 유교문화 기초자원 조사·정리
- 유학 정신을 알리는 차원의 유교문화재 정비
- 현대에 맞는 유교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유교문화원 설립·운영
- 유교문화 박물관(자료관) 및 시연관 설립·운영
- 각종 유교문화 이벤트로서의 내실있는 선비문화제 개최
- 지역별·의미별·주제별 코스, 체험과 탐방을 겸한 테마 유적답사·체험 코스개발

이렇게 하자면 충남 유교문화권 개발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개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개발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의지와 일관된 개발방향을 다져가야 하는데, 이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8) 이해준, 「논산유교 및 예학문화권 개발방향과 전망」, 2001 건양대학교 부설 지역문화연구소 심포지움, -논산시 지역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pp51-54

첫째, 충남 유교문화권의 지속적인 개발의지와 일관된 개발방향을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긴밀한 관학협력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유교문화권 개발은 경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영남유교문화권 개발에 필적하는 투자와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관학 협동이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먼저 대학간의 콘소시엄이 필요하다. 각 대학이나 연구소가 각각 이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학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하나의 주관 대학을 설정하고 이 대학을 중심으로 충남 소재 각 대학의 유학 관련 연구소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며, 이 대학 콘소시엄과 충청남도 및 각 시군이 협약하고 나가서는 충청북도에도 연계해야 한다.

둘째, 충청 유교문화권을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 노력이 절실하며, 이에 관하여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연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만일 충남의 유교문화권을 형성하게 되면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의 많은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뿐더러 외국의 관광객 유치에도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논산의 유교문화권을 실질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하면 부여와 공주의 백제문화권과 연계하는 새로운 충남 관광권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외국의 관광객이 부여와 공주의 백제문화권을 방문할 때, 공주와 부여만을 방문할 경우 2-3일 관광코스가 되지만, 논산의 유교문화권을 개발하여 관광코스화할 경우 1일 정도는 더 충남지역에 머물게 될 것이며, 이는 충남지역의 관광사업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충남 유학의 정신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환으로 「유교문화원」 혹은 「예절문화원」을 신설하는 일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예학의 발상지인 돈암서원 일대를 「유교문화체험단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충남이 한국의 유교문화 중심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유교문화 개발의 방향이 단순히 유교문화 유적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교문화 체험의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의 일환으로 반드시 현대적인 시설의 「유교문화원」 혹은 「예절문화원」을 신설하는 일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유교문화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대중들이 다시 유교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은 대중 스스로가 유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기회는 거의 얻기 어렵다. 충청남도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의 관광개발 및 문화권 개발은 이를 통한 충남 지역민의 문화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유교문화재의 현대적 의미화와 해설서 제작이다. 문화체험자는 체험을 통해 그 문화를 생동적으로 이해하며 그러한 생동적인 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형·무형의 유교문화의 상징적 의미를 오늘날의 현대언어로 전달해야 한다. 전통유교문화의 의미도 모른 채 단순히 수동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전통유교문화를 눈요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험만족도를 반감시킨다. 따라서 유교문화를 의미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체험과 관련된 각 문화의 의미를 팜플렛 제작, 디지털정보화 등 체험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체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풍부한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계층별(연령, 성,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로 다양하게 구비할수록 좋을 것이다. 또한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가족단위의 체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유교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교문화체험과 상호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역사 및 문화답사 프로그램, 불교문화체험, 민속문화체험, 농어촌 체험, 자연생태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⁹⁾

여섯째,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다. 선비문화나 민속놀이 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으로 충남유교문화테마 관광산업의 핵심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전시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은 별개이다. 전시와 시연은 전통문화를 그대로 철저한 고증에 의해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은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학교(제도)교육과 차별화되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인력 및 시설 때문에 하기 어려운 부분을 교육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경직성 조직의 관료성 형식화된 교과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연구조직 교육조직이 가능해야 한다.¹⁰⁾

일곱째, 유교문화를 전달하는 전문가 양성이다. 전통과 현대감각을 겸비한 교육담당자를 육성해야 한다. 유교문화를 대중화하고 생활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교문화해설서를 제공해야 하고 그것을 해설하거나 교육시킬 수 있는 전달자(해설사나 시연자)를 양성해야 한다. 진부한 충효교실이나 어린이 예절학교의 프로그램을 보다 아동이나 청소년 감각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한다. 유교전통문화를 수집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그 문화를 유지·보전하고 전승하려는 의무감과 애착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예절교육 체험관광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재를 적극 양성하여 직업화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충남유교정신의 현대적 활용방안을 교육 및 정신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방자치단체 수익만을 고려하여 관광과 연계된 사업이 되거나 업적 과시용이나 선심성 정책으로 추진되어 전시효과로 마무리되거나 주먹구구식 개발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9) 유승무 위 의 논문 pp.62-63

10) 「우리 민속문화창달을 위한 향교와 서원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 정책과제 2001-15,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pp. 89-91